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Team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Young Sook Lee (Kwonsa)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Philippians 2:5-11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His Descending"	Pastor
* Hymn	 124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His Descending”

The "coming" of the Lord on the day of Christmas involved His gracious act of "descending" down to the earthly, human realm. Such "descending" implies two ways of God: (1) accommodation (God coming down to our level to provide for our needs) and (2) condescension or humiliation (God willing to humble Himself for our sake). The condescension/humiliation of Christ is evident in His willingness to identify with the lowest levels of human experiences. According to Philippians 2:5-8, Christ experienced a continual descending in terms of His incarnated life. First, God the Creator became a human being: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vv.6-7). Second, God the King and Lord became a servant: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v.7). Third, God the Author of Life experienced death, even death reserved for a criminal: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 (v.8). But ultimately, Christ's descension to death and hell resulted in His resurrection and ascension. In other words, His humiliation resulted in His exaltation.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vv.9-11). Likewise, particularly in this Christmas season, we are called to humbly descend ourselves with Christ in all aspects of life, and to completely trust in God to exalt us with Christ in due time: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v.5).

Announcements

-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pray for you.
-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10:00 am (Room 104) - Leadership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2:00 pm (Room 104) - Children’ s Sunday School Class (led by Cing and Shin Hye)
 - 1:00 pm (Room 604) - Youth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and Sally Khokhar)
 - 1:00 pm (Room 104) - “Christian Doctrine” Study (led by Jimmy Eppley)
 - 1:00 pm (2nd floor) - “Romans” Bible Study (led by Vung Zam Cing)
 - 1:00 pm (9th floor) - Mongolian Bible Study (led by Amaraa and Dashka))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III,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꿈나무영여성풍스쿨		오후 4시		701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천세종 심진희 정대은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현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래 장재원 이진광 고수은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현나,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킷산,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작·김정욱(인도), 정성진·홍성민(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 알·민메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 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몽골아시아), 김낙영·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탕, 썬, 코, 가,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이경림,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김 태식, 윤왕모, 노진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대림절②: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

(“The One Who Comes as the King of Peace “)

■ 사 9:6-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평화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는 대립, 증오, 분열, 질시, 박해, 비난, 위협, 전쟁과 같은 것들인데, 평화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며, 그러나 동시에, 사랑, 소망, 기쁨, 자비, 온유, 신뢰,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도대체 어떤 평화일까요? 시편 가자는 평화를 마치 첫 댄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든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엄마 품에 안겨 자는 것 같은 평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자 합니다.

1.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본질이 화평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놀라운 평화를 펼쳐 보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름, 이 평화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평화였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이 무너졌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는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 우리도 희생을 통해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영어로 화평케 하는 자를 peace maker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peace maker에게는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평의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peace maker로 화평을 이루며 살려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지르셨듯이, 우리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 일터의 평화, 교회의 평화, 이웃들과의 평화는 바로 peace maker인 나의 희생이 있어야 드디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그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peace maker들은 희생만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peace maker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시던 밤, 홀연히 나타난 천군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리며, 여러분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모셔 들어십시오. 그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피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민족 가운데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 peace maker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